

SERMON 5 NOVEMBER 2017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 저의 사촌 콜린은 에딘버러에서 의학 수련을 오랫동안 끝내지 못했고, 마취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딘버러의 서쪽 끝에 위치한 스코틀랜드 세인트 쿠스트버트 교회의 거대한 목사 사택인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듯이, 콜린은 터무니 없는 허풍쟁이였습니다. 목회학 박사이시며 존경 받을만한 목사이신 저의 삼촌은, 운 좋게도,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 사택에 전화 벨이 울리자, 콜린이 집에 있었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발신자는 아니나 다를까 Dr Small 과 통화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콜린은 바로 말했습니다, "누구 말인가요?" 의료 실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시나요, 아니면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시나요?

저는 모두가 그들이 설교한 것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매우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는 매우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루터와 그가 불렀던 개혁에 대한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황은 자신의 헌신적인 씬씀이 때문에 바티칸을 떠난 채 거의 파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면죄부의 판매와 같은 기금 모금 수단을 고안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움에서 온 크리스트랜드계의 사회적 역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을

보여 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허영심, 야망과 권력 놀이를 통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 왔고, 고맙게도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복종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사례들을 통해 이렇게 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은 설교를 행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성실성과 단순성의 외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속적이고 다른 종교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이후의 세계에서, 교회의 어려움은 도덕적 부패에 대한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끔찍한 성적, 신체적 학대 사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들을 왕립 위원회가 조사한 바와 같이 조사함에 따라 헤드 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들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들의 기독교적인 삶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은폐하는 일이 있었던 곳은 커다란 그림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특권 남용에 대한 이러한 유혹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그것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이유 없이 약한 빛으로 비유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법의 수호자이자 종교적인 관행의 수호자였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체포되기 몇 시간 전에 성전에 앉아 계시는 동안, 예수는 어떻게 그 리더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들의 옷에 보여지는 매우 명백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는가를 보았다: 성구 함, 그들의 이마와 소매에 묶여 있는 긴 기도들과 그들의 겹옷 위에 긴 기도들을 담은 작은 상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것이 그가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여자가 옷의 가장자리에 닿기 위해 손을 뻗었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 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있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쇼를 위해 경건하게 행동하고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특히 사원이 파괴된 후에 유대인의 삶을 보존하는 것을 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처럼 행동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참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여 준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듣고, 배우고, 우리 스스로의 사랑을 실천하고 실습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그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일반적이고 자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행의 부담에 더해 졌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리더들은 가난한자들의 짐을 덜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요? 우리는 그 자신을 주시는 동정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매 순간마다, 최후의 순간에 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니다. 그는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졌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곱씹어 보는 것은 겸손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할 수록, 겸손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근본적인 우리들의 소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 같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어느 누구도, NIV 성경에서 "리더"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랍비, 스승, 아버지, 교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관들은 리더십과 계급을 확립하고 있으며,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유적인 이마나 팔을 성구 함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는 권력과 지배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은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쇼를 통해 속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경하는 영웅들과 전설적인 영웅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세속적인 어리석음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겸손함을 느끼게 하는 크리스마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되찾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단지 피상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인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것, 우리의 방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고 겸손함과 사랑을 추구하는 전통에 동참합니다. 그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황을 보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의 작은 차 Fiat 를 백악관의 계단에 까지 운전했고, 백악관 보안 세부 사항들의 거대한 검은 색 차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수들과 피난민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교황. 그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사랑의 모델입니다. 이 세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가 표지를 인용한 리처드 로어르의 말에 따르면, 겸손과 정직은 정말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자기 혐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굴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대 당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굴욕을 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부정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가왔을 때, 그들은 예수가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건 약간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숨기거나 숨기려고 노력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직과 위선으로부터 안도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아닌 척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가왔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

받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결점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이 그들에게서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평화로워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를 베푸셨고, 그 잔치는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기에 우리 자신 의 모습 그대로
겸손히 다가 갈 수 있는 식탁에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 테이블을 맞이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